

낙산사 전도... 배울 것과 남은 일

‘방재 매뉴얼’ 만들어 신속 대처를

‘낙산사 화재’ 계기로 본 사찰·문화재 방재대책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천년고찰과 성보문화재가 한순간에 재로 변해버렸다. 불자들은 세계적인 관음성지 낙산사의 전소라는 충격에서 상당기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가위에 눌려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런 재난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화재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본다.

소방서 분소 설치·사찰 주변 벌목해 방화선 구축 실측도면·영상자료 ‘필수’...복제품 활용 고려해야

방재 매뉴얼이 없다

사찰에는 엄청난 문화재가 소장돼 있다. 조계종문화유산 발굴단(단장 성정)에 따르면 대전·광주·강원·전북·제주·충남·충북·전남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1072개 사찰에 2만6000여 점에 달하는 문화재가 소장돼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비한 유물 대피 요령이나 보호 지침과 같은 방재(防災)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범장)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이나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경무)도 마땅한 방재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시한 바 없다.

방재 매뉴얼은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알려준다. 대피시킬 문화재의 우선순위를 사람들과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준다. 평소 이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충실히 훈련한다면 재해를 당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져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또 방재 매뉴얼은 개인과 사찰뿐 아니라 관계기관 사이의 공조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줌으로써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케 한다. 불이 붙기 전에 보호각을 해제하면 됐어도 낙산사 동종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고 보면, 신속한 결정과 조치가 더욱 아쉽기만 하다.

허술한 방화 시설

낙산사는 급히 마련한 150여개의 소화기와 소화전으로 화마에 맞섰다. 국가지정문화재소장소가 있는 97곳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75곳에 국고보조로 소화전이 설치됐지만, 낙산사는 국가지정문화재소장소가 없어 자체적으로 소화전을 갖췄다. 풍도사·해인사·봉선사 등 소방차를 보유하고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대부분 사찰의 방화시설수준이 낙산사보다 나은 것이 없다”면서 “낙산사와 같은 큰 피해는

어느 사찰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흡한 방화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조계종은 주요 문화재 보유 사찰에 한해 소방서 분소 설치와 아울러 방화선(防火線)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방화선이란 사찰(또는 전각) 주변 나무를 벌목해 주변 임목이 쓰러지더라도 전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간격을 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해인사 장경판전이다.

방재·복원 대책

방재시스템구축-방재의 생명은 신속한 대처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과 문화재청, 해당 소방관서 및 지역민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야 한다. 주요 관계자들은 주기적인 합동 훈련을 통해 시설을 점검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지역민은 의용소방대와 같은 형식으로 방재에 참여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설비강화-비상시 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방화벽, 방화선, 수막차단벽 설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막차단벽은 수막을 형성시켜 열기와 불씨가 옮겨 붙는 것을 차단하는 설비로, 일본 대형 사찰에는 보편화 돼 있다. 이 같은 소방시설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 방재 전문가는 “현행 소방법을 따른다면 낙산사에는 소화기 몇 대만 있으면 적법한 것이었다”며 “화재에 취약한 사찰 목조건축에 대해서는 강화된 소방설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제품 활용-진품을 성보박물관 등에 보관하고 복제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 유홍준 청장은 4월 8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25개 보물급 범종 가운데 12개가 목조보조각에 걸려있다”며 “이 범종을 복제품으로 대체하는 안을 조계종과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제품에 대한 사찰측과 불자들의 거부 정서는 넘어야 할 산이다. 박지선 용인대 교수(문화재보존학과)는 “일본에서는 1940년대 발생한 호류지(法隆寺) 금당 화재 이후로 문화재를 남겨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져 복제품 제작이 활성화됐다”며



스님들의 신속한 대처로 화마를 면한 건칠관음보살좌상(보물 제1362호).

“복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성보박물관 시설 개선-성보박물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목조로 건축된 성보박물관은 일반 전각보다 더 안전하다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곡사·은혜사·적지사·갑사와 흥천 수타사 등의 성보박물관이 이에 해당한다.

주요 문화재 실측-복원 또한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복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실측이다. 문화재청이 낙산사 ‘복원’을 이야기하지만, 소실 전각의 실측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 복원을 하더라도 신속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반해 2003년 화재로 소실된 원주 구룡사 대웅전은 강원도가 사전에 제작해둔 실측보고서가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복원할 수 있었다.

사찰 보험상품 가입 적극 유도-현재 사찰보험은 동부화재의 사찰종합보험이 유일하다. 현재 가입 사찰은 32곳인데, 가입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찰은 12곳에 불과하다. 경주 불국사가 가입액 149억76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석굴암 51억원, 공주 영평사 27억원 등이다. 이번에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낙산사는 대한화재에 보험금 5억원의 ‘장기종합 추후추동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액 규모가 3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5억원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 폐허로 변한 천년고찰 낙산사

동종·원통보전·홍예문 등 주요 문화재·전각 스러져

4월 5일 화마(火魔)에 휩쓸린 낙산사. 낙산사는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기도 도량으로 손꼽히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천년고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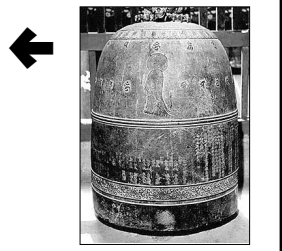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로 671년(신라 문무왕11년) 의상(義湘)대사가 창건한 낙산사는 의상대사가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와 관음보살의 진신(眞身)이 낙산 해변 어느 굴 안에 산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낙산(洛山)이라고 명명했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858년(현안왕 2) 개산조인 범일(梵日) 스님이 증건한 것을 비롯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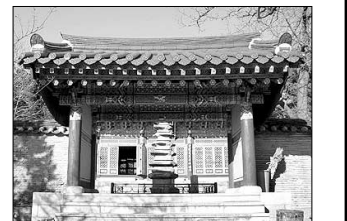
낙산사 동종, 동종은 조선시대 예종이 아버지인 세조를 위해 낙산사에 보시한 것으로 높이 158cm, 입지름 98cm, 보살상 높이 36.8cm의 범종이다. 특히 조각장식 형태가 뚜렷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해 조선시대 결적으로 꼽힌다.

보물 제499호인 칠층석탑도 정밀 감정이 필요할 정도로 훼손됐다. 특히 청동으로 만든 탑의 뾰족한 윗부분인 상륜부의 일부가 녹아내렸으며 기단부 10×30×2cm 가량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강원도유형문화재인 홍예문(세



조선시대 대표적 종인 동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화재전 홍예문(강원도 유형문화재 33호·원축)과 원통보전 및 칠층석탑.

몇 차례 중창을 거듭했으며, 고려시대 문물 침입 시기와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이어 한국전쟁 도중에도 소실됐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부침의 역사를 거듭한 낙산사는 1953년 원통보전과 범종각 복원을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 대법당 보타전과 보타루와 일주문을 복원하면서 대관음도량의 면모를 다시 갖췄다.

그러나 이번 화재로 주요 전각과 문화재들이 소실돼 안타까움은 더한다. 무설전, 종각, 조계문 등 40채 전각 중 21채가 전소됐다. 더 아쉬운 것은 주요 문화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물 제479호인

33호와 원통보전(제35호)도 마찬가지다. 낙산사의 관문인 홍예문은 1466년 세조가 방문했을 때 강원도 지역 26개 고을의 돌 26개를 가져와 무지개모양으로 조성했다. 주변 건물과 함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스님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화마를 피한 보물 제1362호 건칠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있던 원통보전은 강한 돌풍에 실려 날아온 불기운에 기와장판 남았다.

그나마 홍련암과 의상대, 원장(강원도 유형문화재 34호) 등이 화마를 피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이 위안이다.

유철주 기자

道庵堂 性道大宗師 49齋 및 사리 親見法會

歸依三寶하옵고
 금번 올유년 4월 14일(음력 3월 6일) 목요일 도암당 성도 대종사를 추모하는 49재 및 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 근 현대사의 산 증인이셨고 종단의 화합과 발전 그리고 포교활동에 평생을 헌신하셨던
 큰스님을 추모하는 이자리에 종단의 원로 대덕 큰 스님과 평소 큰 스님을 흠모하셨던 각계의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2549년 4월 14일(음력 3월 6일) 오전 10시
 ◆ 장 소 : 흥도사
 ◆ 연락처 : (02)2234-2198

※ 일체 모든객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도대표 법상 拜上
 총무원장 법천 拜上
 대한불교 대승종 도암당 성도대종사